

광주 아파트 전세가율 80% 육박... '강통전세' 주의보

'77.6%' 5년만에 최고·전국 특광역시 1위 북구 80% 돌파...평균낙찰가율과 격차 미미 집값 하락·고금리 부담에 매수 전환 '주춤'

광주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5년여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는 꾸준히 수요가 있지만 고금리에 투자 수요 감소와 보유·취득세 부담 등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강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77.6%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북구가 전세가율 80%를 넘긴 것은 지난 2021년 8월 80.4% 이후 처음이다. 이는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동시에 매매가격 하락이 지속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광주 북구의 경우 전세가율이 80.7%로 지난해 9월부터 이미 80%를 넘어섰다. 북구가 전세가율 80%를 넘긴 것은 지난 2021년 8월 80.4% 이후 처음이다. 이는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동시에 매매가격 하락이 지속된 결과로 풀이된다.

보통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면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일명 '강통전세'라고 하는 위험 매물로 분류된다. 매매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면 경매 등을 통해서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광주 전세가율이 단기간에 크게 떨어지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전세 공급 축소와 매매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한 전세가율의 하방 압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의 문제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 북구처럼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지역은 광주 서원구(85.5%), 전남 목포(84.4%), 전남 광양(84.2%) 등 전국에 총 20곳이 있다.

3월 경상수지 373.3억달러 반도체 등 호조에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 3월 우리나라가 국제 교역에서 54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경상수지는 373억3000만달러(약54조4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 종전 최대인 지난 2월의 231억9000만달러를 훌쩍 뛰어넘었고,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3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올해 들어 3개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737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194억9000만달러)의 3.8배에 달했다.

김영환 경제통계1국장은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이 4월 들어 상품 수입과 수출에서 조금 나타났지만, 전체 흐름을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수출 호조가 어떻게 이어질지, 중동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350억7000만달러로, 작년 3월(96억9000만달러)의 3.6배로 역대 가장 컸다.

수출(943억20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56.9% 급증해 역대 최대였다. 정보기술(IT) 품목이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를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했고, 비 IT 품목도 조업일수 확대, 석유제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167.5%), 반도체(149.8%), 무선통신기기(13.1%), 석유제품(69.2%), 화공품(9.1%) 등이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68.0%), 중국(64.9%), 미국(47.3%), 일본(28.5%) 등에서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 중동(-49.1%) 수출은 줄었다.

수입(522억4000만달러)도 17.4% 늘었다. 자본재 수입이 정보통신기기(51.6%), 수송장비(34.8%), 반도체(34.5%) 등을 중심으로 23.6%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다만, 적자 규모는 작년 동월(-25억1000만달러)이나 전월(-18억6000만달러)보다 작았다.



고성신 농협자산관리회사 대표이사(오른쪽 네 번째)가 지난달 30일 광주전남지사 현장경영 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자산관리회사, 전국 12개 지사 현장경영 마무리

조직개편 점검·농심천심 공감대 확산... "현장 중심 소통 강화"

농협자산관리회사는 지난 4월 한 달간 전국 12개 지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경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현장경영은 조직개편 이후 현장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했고, 비 IT 품목도 조업일수 확대, 석유제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167.5%), 반도체(149.8%), 무선통신기기(13.1%), 석유제품(69.2%), 화공품(9.1%) 등이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68.0%), 중국(64.9%), 미국(47.3%), 일본(28.5%) 등에서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 중동(-49.1%) 수출은 줄었다.

수입(522억4000만달러)도 17.4% 늘었다. 자본재 수입이 정보통신기기(51.6%), 수송장비(34.8%), 반도체(34.5%) 등을 중심으로 23.6%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다만, 적자 규모는 작년 동월(-25억1000만달러)이나 전월(-18억6000만달러)보다 작았다.

농협은 최근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임원후보자 추천기' 구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외부위원 추천기관은 기존 5개 기관(상급 농업인단체 2곳·대학교 3곳)에

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 △회사 역량 강화 △농업인 신용회복 지원 △나눔같이 경영 등 3대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장 소통도 강화했다. 직원들과 의견 교환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하며 실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범농협 차원에서 추진 중인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힘을 쏟았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신보, ESG 노사협력 '고용부 장관상' 노사상생·조직문화 혁신 성과 인정 받아

광주신보보증재단은 최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회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에서 ESG 노사협력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언론인협회와 고려대학교 ESG 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지속가능경영과 ESG 가치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

광주신보는 노사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공헌 활동과 조직 발전 과제를 함께 추진하며 건전한 노사관계를 조성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단은 노사화합 전락체계를 점검해 3대 전략방향과 7대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열린 경영 실현과 조직문화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해 왔다. 또 분기별 노사협의회 운영과 임직원 소통 채널 활성화를 통해 노사 간 의견 공유와 갈등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특히 공무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 구성원 간 협력성을 높였으며, 인권경영 운영 매뉴얼 제정과 고충상담원 운영 등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써왔다. 이와 함께 봉사동아리를 중심으로 애육원 봉사, 김장 나눔, 배식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협력적 조직문화는 경영 성과로도 이어졌다. 광주신보의 지난해 신규 보증공급 규모는 4571억원으로 전년 대비 41.6% 증가했다. 올해도 4월 말 기준 2508억원을 공급하며 연간 목표액 4573억원의 절반 이상을 조기 달성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염규승 이사장은 "앞으로도 ESG 경영을 기반으로 노사 상생 문화를 확산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통해 노사 간 의견 공유와 갈등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NH농협생명 전남총국은 최근 고용농협에서 'NH원더풀간병안심요양보험' 1호 가입행사를 개최했다.

고용농협, '올원더풀간병안심요양보험' 가입 전남 1호...최대 365일 간병 보장·보험료 부담 완화

NH농협생명 전남총국은 최근 고용농협에서 'NH원더풀간병안심요양보험' 1호 가입행사를 개최했다.

이 상품은 기존 요양·간병 통합형 구조에서 벗어나 요양과 간병 보장을 각각 특약 형태로 분리한 조합형 상품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고객이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보장을 선택할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신설해 표준형 대비 약 10%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망 시 계약자적립금 지급형 특약도 함께 비교·안내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동일 담보에 대해서도 다양한 구조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한 점도 눈에

된다. 보장 범위도 한층 확대했다. 요양 분야에서는 복합제거와 복지요구 등 장기요양 제가시절 관련 특약을 새롭게 도입해 제가급어 보장을 강화했으며, 장기요양 판정 이후 간병인 사용 임원비 보장도 마련했다.

간병 분야에서는 기존 180일 수준의 보장에서 나아가 최대 365일까지 장기간병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염준석 총국장은 "이번 상품은 경쟁부터 중증까지 장기요양 전 단계에 걸쳐 간병과 생활자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고객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임원 인사 시스템 전면 개편

농협중앙회가 이른바 '낙하산'·'회전문 인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임원 인사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섰다.

농협은 최근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임원후보자 추천기' 구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외부위원 추천기관은 기존 5개 기관(상급 농업인단체 2곳·대학교 3곳)에

서 8개 기관(상급 농업인단체 3곳·학회 5곳)으로 확대된다. 특정 기관에 추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수 추천 방식도 도입했다.

후보자 검증 절차 역시 한층 강화된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심층 면접과 평판 조회 등을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종합 검증할 계획이다.

중양회의 경우 2026년 상반기 임기 만료 예정인 사외이사 선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